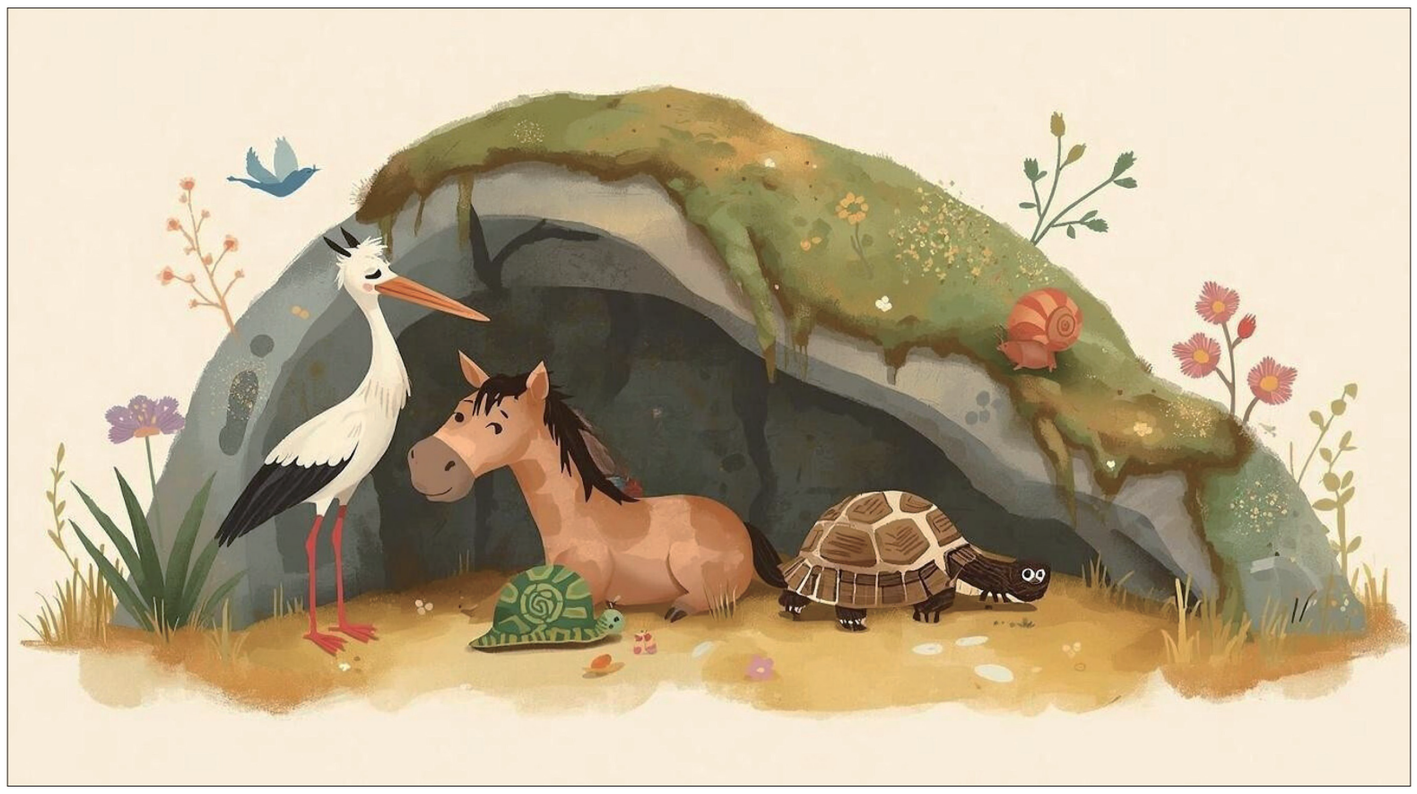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시, 불교를 만나다

㉕ 속도인가, 방향인가? : 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야 생존할 수 있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화된 음식 배달이나 각종 배송 산업 또한 속도가 관건이 되고 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 사람이 며칠씩 걸리는 일도 AI에 맡기면 단 몇 초 만에 임무를 수행한다. 속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일을 시험 삼아 AI에 물어본 적이 있다. 적어도 몇 달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는데, 인공지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AI에 의존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 문제는 오래 지나지 않아 해결될 것이다. 범용인공지능(AGI)이 휴대전화처럼 일상화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빠르게 달리다 추락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인도의 우화가 있다.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토리 열매 하나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깜짝 놀란 토끼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뛰기 시작하자 사슴과 노루 할 것 없이 다른 동물도 그 뒤를 따라 빠르게 달려갔다. 이 광경을 본 사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들 앞을 가로막고 물었다.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사자는 다시 "왜 그렇게 빨리 뛰느냐?"고 물었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동물 역시 없었다. 그저 옆에서 뛰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빨리 달렸을 뿐이다. 토끼를 비롯한 여러 동물의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그렇게 빨리,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일까?

속도는 달라도 여러 동물이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짧은 시 한 편을 만났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다.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새해만 되면 많이 소환되는 작품이다. 황새와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가 새해 첫날 도착했는데, 바위는 이미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다. 속도를 강조하는 오늘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것 같아 소개한다.

반칠환 시인은 199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한다. 시인은 각종 신문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특히 동아일보의 '이 아침에 만나는 시'를 비롯해 서울경제신문의 '수요일에 만나는 시'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좋은 시를 소개해 왔다. 현재 시와 산문을 쓰면서 생태 숲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시집으로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과 〈웃음의 힘〉, 〈전쟁광 보호구역〉 등 다수가 있다. 이 밖에도 〈누나야〉, 〈새해 첫 기적〉 등의 시선집과 사화집도 출간했다. 그의 시 가운데 '노랑제비꽃'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많이 읽히고 있다. 잠시 감상해 보자.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 지구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다"

이처럼 그의 시는 짧으면서 웃음과 해학으로 가득하다. 반면 여운은 길어서 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삶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는 작품이 많다. 짧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에 맞는 것 같지만, 시인의 다음 말을 들으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다. "속도의 시대에, 속도를 따라잡으며,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마치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빨리만 달리던 동물을 멈춰 세운 사자를 연상케 한다. 시인이 우리에게 '한 템포 쉬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오늘의 시 '새해 첫 기적'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2012년 '광화문 겨울 글판 문안(교보빌딩)'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접 감상해 보기로 하자.

2012년 '광화문 겨울 글판 문안' 선정 시
속도의 시대, 방향의 중요성 재확인케 해
달리기 멈추고 지향하는 바 되돌아봐야

"황새는 날아서 / 말은 뛰어서 / 거북이는 걸어서 / 달팽이는 기어서 / 굼벵이는 굴렀는데 /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속도보다 방향

몇 해 전 신년 법회에 참석한 학인들과 함께 이 시를 읽은 적이 있다.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왔으며,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온 학인도 있었다. 젊은 사람은 한걸음에 계단을 뛰어 올라왔지만, 나이 들고 다리가 불편해서 힘들게 올라온 이들도 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니 부처님은 시 속의 바위처럼 앉은 채로 이미 도착해 있었다. 서로 다른 방법과 속도로 왔지만, 새해 첫 법회에 우리는 모두 불교대학 법당에 함께 있었다. 이것이 진정 새해 첫 기적이 아닐까 싶었다.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뜬금없이 불교의 돈점(頓漸) 논쟁이 생각났다. 돈은 즉각적이라 새나 말처럼 빠르고, 점은 점차적이라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점에서 연상된 것 같다. 알려진 것처럼, 즉각적인[頓, sudden] 깨침을 강조하는 6조 혜능(慧能)과 점차적인[漸, gradual] 수행을 중시하는 신수(神秀)의 차이에서 일어난 논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른바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 논쟁으로 이어져 한국불교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단경(壇經)〉에는 5조 홍인(弘忍)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문제를 내고 신수와 혜능이 답안을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극적이고 흥미롭게 전개된다. 먼저 신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밝은 거울[明鏡]에 비유했다.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으려면 열심히 털고 닦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점차적인 닦음을 주장하는 전통을 북종선(北宗禪)이라 한다.

반면 혜능은 이와는 확연히 다른 답안을 제출했다. 거울이라는 마음에는 본래부터 먼지(번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먼지가 있다고 전제하는 한, 영원히 닦음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깨침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은 원래 번뇌가 없어서[空] 항상 청정하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상을 즉각적으로 깨치는 일이다. 돈오를 강조하는 남종선(南宗禪)의 전통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스승은 혜능이 견해가 더 좋다고 판단해서 6조의 자리를 물려준다.

한국에 들어온 선불교는 혜능 중심의 남종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해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을 확립한 선사들도 대부분 혜능의 전통을 계승했다. 물론 북종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했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남종의 전통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 수행 또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看話禪)을 중시하고 있다. 이 수행 체계가 견성(見性)을 이루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해서 '경절문(徑截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수행자들은 안거(安居) 기간에 화두를 타파하고 마음을 깨치기 위해 정진의 밤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참선은 중시하고 염불과 같은 수행은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남아 있다. '선은 상근기요 염불은 하근기'라는 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어려운 참선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보다 쉬운 염불을 하라는 것이다. 염불이나 주문, 절 수행 등이 깨침을 향한 독자적인 수행이 아니라 단지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문다는 시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친다는 방향에 있는 것이지, 방법이나 속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똑같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실제 근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수월(水月, 1855~1928) 선사는 스승인 경허(鏡虛, 1849~1912) 선사의 지도에 따라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수행하고 깨침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올바른 방향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력 수행에 매진한 결과 깨달음에 이르고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선지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를 통해 속도나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시에서 강조한 것처럼 황새와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는 모두 속도와 방법이 달랐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기에 모두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바위는 오래전부터 깨침이라는 부처의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이 시를 읽으면서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위하는지도 모른 채 속도에만 열을 내는 오늘의 우리 모습도 돌아보게 된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뭣이 중헌디?"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속도와 눈앞의 이익만 강조하다 벌어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오늘의 인문학과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